

테마칼럼

공간과 생활

문화의 향기

다시읽기

과학과 경영

‘똑똑한 바보’ 만들지 않으려면



유정식

‘년 시키는 일이나 하라’며 모든 권한을 통제하면서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직원의 역량이 회사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러 경영자들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도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회사의 성과가 여전히 제 자리를 맴돌고 힘들어 키운 직원들이 회사에 안녕을 고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전기 충격을 가했다. A그룹의 쥐들이 모인 우리에는 전기 충격을 차단하는 스위치가 있었으나, B그룹에는 없었다. 여러 날 전기 충격을 가한 결과, A그룹은 전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양호했다. 반면 B그룹은 스트레스에 사달렸는지 위궤양에 걸린 놈들이 많았고 어떤 쥐들은 체념한 채 드러누워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두 그룹은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양의 전기 충격을 받았다. A그룹의 쥐가 스위치를 내리면 동시에 B그룹의 우리에도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실험 장치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외부 변화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없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통제력을 잃으면 머리로 나빠진다. 이번엔 사 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음을 틀어놓은 상황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A그룹이 앞

은 테이블에는 소음 차단 스위치가 있었고, B그룹에는 없었다. 실험 결과, A그룹이 문제를 훨씬 많이 풀었고 또 틀린 개수도 얼마 안 됐다. 반면 B그룹의 사람들이 풀 문제 개수는 A그룹 보다 적었고, 오답도 많았다. 소음이 들릴 때마다 스위치를 껐기 때문에 A그룹의 성적이 더 좋았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A그룹은 스위치를 한번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차단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문제풀이 능력을 유지시킨 것이다. 반면 ‘소음 때문에 문제를 잘 풀 수 없어!’라는 스트레스가 B그룹의 머리를 나쁘게 만든 원인이었다. 직원의 우수한 역량과 활기찬 직장생활의 열쇠는 교육과 복리후생과 같은 대응요법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통제력을 이 실험은 시사한다. 역량이 뛰어난 직원도 소신껏 일할 수 없다면, 위에서 떨어진 일이나 수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한 때 뛰어났던 지적능력은 금세 빛을 잃고 그저 뒷사람의 입만 쳐다 보는 ‘똑똑한 바보’가 된다. 내 후배는 똑똑한 바보의 단적인 예다. 그는 명문대 석사 출신으로서 경영연구소에서 일하다 모 회사의 전략기획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 입사할 때의 약속과는 달리 콘도 예약을 관리하고, 유명강사 초청강연회를 뛰쳐다끼리 하는 복리후생 담당자를 맡았다. 그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우유를 대우하 나뉘는 일이었다. ‘잃어버린 2년’을 보내고 그는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굴지의 기업에서도 비일비재하다. 한 때 삼성의 영향을 받아 많은 기업들이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열을 올렸다. 하나 힘들게 뽑아놓은 이후의 성적표는 별 볼일 없다. 역량에 맞게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뽑아만 놓으면 다 되는 줄 착각한 결과다. 결국 많은 인력이 회사를 떠났고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다. ‘권한 위임’은 상위자들이 독점한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이다. 현대 권한 위임이 잘 되는가 싶다가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원들 개인의 역량과 선호에 맞게 업무를 부여하고 통제력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는 조성하지 않은 채, 그저 문서 상으로만 권한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년 시키는 일이나 하라’며 모든 권한을 통제하면서 개인의 우수한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직원들을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통제하도록 만들 때 기업의 경쟁력은 기초가 탄탄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똑똑한 바보’들이 우글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인류처컨설팅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민철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을 감동시켰던 ‘전경과 어머니’라는 동영상 을 봤다. 훗날시위현장에서 피어난 따뜻한 모습에는 필자에 가슴을 찡하게 만들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이런 헌신과 희생의 대가인 지 병원을 찾는 척추환자 역시 여성이 훨씬 많다.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 뼈가 앞으로 넘어지는 요추 후만 변성증(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은 한국과 일본 등 재래식 여성 농업종사자에게만 나타난다. 과거엔 병인지도 모르고 노화의 과정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허리가 굽어지는 경우는 적절한 처치가

디스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척추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쪼그려 앉아서 일을 오래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집안일을 매달하는 여성들은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강화운동을 통해 이런 허리 굽는 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의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조리대나 싱크대는 주부가 편안하게 세울 때 배꼽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해 높이를 맞추고, 방장고를 이용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음식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위쪽에 넣어두고 아래쪽 음식물은 꺼낼 때에도 주저앉아 무릎을 꿇은 자

꼬부랑 할머니도 허리를 펴 수 있나요?

필요하다.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래 일하는 경우 허리에 과한 근육이 약해지고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에 의한 척추의 퇴행이 이를 가속화시킨다. 설거지할 때 팔꿈치로 싱크대에 지탱해야 하거나 걸을 수록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면 이병을 의심해야 한다. 요추 후만 변성증은 간단한 문진과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지만 척추불안증을 동반하는 등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관 탈출증)와 증세가 유사해 오진하기 쉬우며, 이런 경우엔 MRI 검사를 통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몸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중의 36% 정도인 반면 남성은 44%를 차지해 여성의 근육량은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다. 적절한 근육을 유지해야 척추가 지지를 받아 요통이나

세를 취해야 한다. 또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낼 때 역시 받침대를 설치해 한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세탁물을 꺼내면 허리가 펴진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덜 건다. 이 밖에도 장롱이나 선반 위치를 높인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반드시 발판을 사용해서 꺼내도록 해 무릎걸에 발걸음으로 간신히 서 있는 상태에서 두 손은 뻗어 척추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희생적인 어머니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일 것이다. 집안 일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뺀어 줄여야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준다면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의 허리는 쉴 수 있을 것이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 이 될 것이다. <광주세우리병원 원장>

주부 교양강좌 수강이라도 예절은 지켜야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집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있는 것이 무료해 얼마전부터 모 단체에서 주관하는 주부교실 강좌를 듣고 있다. 한지공예를 하는 강좌인데 평소 관심이 있었고, 결혼 전에 조금 해봤던 일이라 이번엔 제대로 배울 생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주부들의 무례한 수업 태도에 수강생으로써 감사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았다. 휴대용 벨소리

는 약과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강의도중 DMB폰으로 TV를 보는 주부도 있었다. 또 강사 앞에서 버젓이 얼굴 화장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리 교양강좌라지만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는 수업 아닌가. 생업이 달린 자력시 힘이나 입사시험이라면 이렇게 태만할까. 아무리 부담없는 주부대학 교양강좌라 해도 예절은 지켜야 할 것이다. <배니현·광주시 북구 장동동>

기고

김상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흥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수 서유석의 특유의 구슬픈 창법으로 시작되는 노래 ‘홀로 아리랑’은 독도의 외로운 섬에 비유하고 있다. ‘독(獨)’을 쓰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독’은 남도 방언으로 ‘돌’의 뜻을 지니고 있다. 돌로 이뤄진 섬. 즉 ‘돌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독도를 ‘독섬’이라고도 부른다. 사실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입에 오르내린 섬이다. 독도는

1952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해역 영유권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특히 일본은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다. 2004년 우리 측의 독도 우표발행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고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임을 명기했다. 일본은 2005년 5월에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연구회’를 설립해 독도에 대한 영토권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케시마연구회의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등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외교 교섭시 도다.

독도는 외롭지 않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구획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해양수산부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이다.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됐다. 이 우리 땅 독도가 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문제를 집어넣은 것은 영토문제에 대한 장기적 포석이다. 물론 일본의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뒤, 러일 전쟁을 계기로 1905년 시마네(島根)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국제관계 사례 본토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우리 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독도를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넣었다. 일본이 분쟁을 선언하고 나온 것은

연구회 외에도 일본은 시마네현에 독도문제를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직화·체계화 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평상시 대비와 연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독도연구는 민간학자들이 학술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해와 지속적 상태다. 일본이 아무리 떠돌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실효자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일본의 도발에 일회일비할 필요 없이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정점에 대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관계 사례 분석, 국내외 역사적 자료 등 국제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임방울국역진흥회 사무국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연계 낙농업 미래 밝다

농촌이 어렵다. 양돈, 양계, 낙농 등 모든 농업 분야가 어렵다. 며칠전 낙농육우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재 65.6%의 낙농가가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낙농업의 불투명성(55.4%)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낙농업의 소득이 낮아서 기피하거나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즉, 낙농만으로 고소득이 가능하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여기에 정책적

뒷받침과 우유 소비의 향상, 정부의 지원과 낙농업 환경의 개선이 뒤따라야만 후계자는 얼마든지 나올 것이고 낙농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낙농도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도시인들에게 인기있다고 한다. 목가적이며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갖추고 있어서다. 앞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낙농을 연계시켜 활용한다면 낙농의 미래는 밝다. <▲유근우·광양시 향길동>

시설

10년 ‘방치’ 율촌2산단 조성 서둘러라

율촌제2산업단지가 산단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다. 2012년 엑스포 특수로 율촌2산단이 소재한 여수지역은 입주 희망기업이 늘고 있는데도 정작 용지가 없어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수요가 있는 데도 산단 조성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모처럼 잡은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여수시 율촌면과 소라면 일대 8.19km를 율촌2산단으로 지정했다. 이후 전남도는 1999년부터 율촌2산단 부지를 정부와 공동개발기로 하고 광양항 3단계 항로 준설도 투기장으로 활용한 뒤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단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밀그립조차 나오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수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수는 지금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2012엑스포 유치로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입주 희망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4년 착공한 율촌1산단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새 기업이 들어설 공간용지가 없는 상태다. 율촌2산단 개발이 늦어지면서 부지가 없어 기업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만 해도 20여개의 기업이 공장용지를 구하지 못해 투자를 포기했다. 여수상의는 땅이 없어 투자를 포기한 기업이 67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율촌2산단 조성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수요가 충분해도 산단조성을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산업도시에 공장부지가 없어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데서야 말이 되는가. 용지부족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잃어버린 큰 문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율촌2산단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백수’ 260만인데 신규 취업 15만이라니

지난달 전국의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7천명으로 4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2005년 2월 8만명 이후 4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당초 3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아마도도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일자리 감소폭은 심상치 않다. 서비스업 신규 취업자는 5월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지난해 수준에는 크게 못미쳤다. 제조업 일자리는 3만3천개 줄어들었고 건설업은 6만1천개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구직을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취업준비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천명, 그냥 쉬는 사람은 3만7천명이나 늘어났다. 실업자 76만4천명에,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는 사람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백수’가 257만3천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의 고용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광주의 지난해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1%를 크게 웃돌면서 5월에 이어 두 달째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청년실업률은 10.3%(1만3천명)로 대구와 함께 가장 높았다. 전망도 비관적이다.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잃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경제의 둔화와 외환위기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신규 채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어 큰 일이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내수 부진을 불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無等鼓

제20회 민원올림픽이 한창이던 1972년 9월 5일 새벽, 8명의 아랍 무장 게릴라들이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했다. ‘검은 9월달’을 자칭한 게릴라들은 투옥된 동료 200여 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코치 2명을 사살하고 선수 9명을 인질로 삼았다. 게릴라들은 당시 서독정부의 몸값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게릴라들은 이집트 카이로까지 이송 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받아들여 그날 밤 헬리콥터를 이용, 여객기가 준비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게릴라들이 공군기지에 내리는 순간 서독 경찰은 일제히 사격했다. 게릴라들도 응사했지만 인질 전원과 5명의 게릴라가 현장에서 죽고 3명은 생포됐다. 이후 올림픽 개최국들은 원만한 경기 운영과 함께 보안에 극도의 신경을 써왔다. 올림픽에는 대규모 선수단과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적대국이나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도 얼굴을 맞대게 돼 분쟁요인이 산존한다. 테러리스

트들에게는 올림픽만큼 매력적인 무대는 없다. 따라서 차질없는 경기 진행과 함께 유무형의 사고를 방지해야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8일 올림픽 개막을 20여 일 앞둔 베이징이 ‘준 게임상황’이라는 소식이다. 중국 내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기엔 3중 검색망을 통과해야 한다.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國家體育場) 주변에는 지대공미사일이 배치됐고 ‘우징’(武警·무장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또 각 경기장에 긴 우산 등 뽀족한 물체나 라이터 등의 반입이 금지됐다. 펄펄 소나기 같은 색깔의 응원복 착용도 못하게 했다. 테러 도구나, 집단사위의 소개가 될 수 있다는 열려서다. 이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은 ‘안 돼 올림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중국의 조바심이 지나쳐 인류 화합을 강조하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이라는 올림픽 슬로건이 무색하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안 돼 올림픽’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